

# 정보통신기술기준위원회 활동소식

## 협

회는 96년 1월부터 민간차원의 정보통신기술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정부의 기술기준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분야의 표준화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보통신기술기준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8월까지 CATV관련 기술기준(안)과 TV자막방송 기술기준(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건의했던 정보통신기술기준위원회 산하에는 현재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전문실무반이 구성되어 전기통신 기술기준의 단말장치 부문과 사업자 설비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9월 18일에 개최되었던 제1차 전기통신 기술기준 전문실무반(의장 : 최봉근/KT)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출된 검토의견서 내용의 확인과 보완이 있었다.

- ▶ 단말장치 부문(의장 : 장우현/ETRI)
  - T1, E1, STM64 등의 보완에 관한 의견 : 이춘호/KT

-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안) 보완본 : 장우현/ETRI
- 직류회로 페로시 임피던스에 관한 의견 : 이춘호/KT
- ▶ 사업자설비 부문(의장 : 최봉근/KT)
  - 전력선 유도전압 산출방식에 관한 의견 : 이훈수/한국전력
  - 통화 및 접속 품질 등에 관한 의견 : 노갑신/데이콤
  - 통신망 안전성 및 신뢰성 기준 제안 : 김원순/ETRI

정보통신기술기준위원회는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연구소, 정부기관의 기술기준관련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이해관계자가 제안한 기술기준 제·개정(안)의 타당성 검토 및 수정·보완과 기타 기술기준 관련제도 및 정책사항 검토 등의 활동을 주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심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는 바이다. 